

기네스 등재 거부 '성냥 에펠탑' 반전 결말

기네스북 등재가 거부됐던 에펠탑 모형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냥개비 건물'로 공식 인정됐다(관련기사 본보 1511호 '8년 쌓은 '성냥개비 에펠탑', 기네스북 등재 실패 이유).

10일 영국 BBC에 따르면 기네스북은 지난 8일 프랑스의 모형 제작가 리사르 플로(47) 씨가 성냥으로 쌓은 7.19m 높이의 에펠탑을 최고 기록으로 인정했다.

이 에펠탑은 8년간 약 4200시간을 들여 지난달 초 완성됐다. 7.19m를 쌓는데 성냥개비 70만 6900여개와 접착제 23kg이 투입됐다. 종전 기네스 신기록은 6.53m였다.



▲ 기네스북 인증서를 들고 자신이 제작한 성냥 에펠탑 앞에서 리사르 플로, 사진=연합뉴스

에 등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단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성냥을 쓰지 않았다'며 등재를 거부했다.

플로 씨는 애초 성냥 머리의 유황을 일일이 긁어내 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머리가 없는 성냥 몸통을 주문해 탑을 쌓았는데, 심사위원단은 이를 문제 삼았다가 세계 기록으로 인정된 것이다.

마크 맥킨리 기네스 세계 기록 이사는 "성냥 유형에 대해 우리가 다소 가혹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플로 씨의 시도는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플로 씨는 오는 7월 개최되는 파리올림픽에 자신의 '성냥 에펠탑'이 전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플로 씨는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생각해 기네스북

축구 경기 도중 벼락 맞아 사망

축구 경기 도중 한 선수가 벼락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 위치한 실리왕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 도중 축구선수 셉티안 라하르자(35)가 벼락에 맞아 쓰러졌다. 셉티안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 경기 중 축구선수 셉티안 라하르자원 내가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 사진=deb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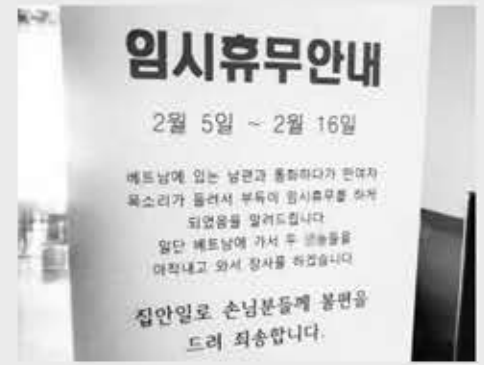
소셜미디어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셉티안이 경기장을 걸던 중 '번쩍' 하며 번개가 그에게 꽂혔다. 셉티안 근처에 있던 선수는 번개로 인한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동료 선수들은 쓰러진 셉티안을 향해 달려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셉티안의 유니폼은 찢겨 있었고, 몸에도 화상을 입었다. 열린 공간에서 사람이 번개에 맞는 일은 흔하지는 않다. 이런 종류의 낙뢰는 전류의 일부가 심혈관 또는 신경계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축구 경기 중 선수가 벼락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04년 중국 축구 리그에서 뛰던 18세 선수 장타오는 훈련 중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브라질 파라나주 산투 안토니우 다 플라치나에서 열린 지역 아마추어 축구 대회 경기 중 벼락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베트남 간 남편 때문 ... 식당 휴무 사연



▲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식당 출입문에 부착된 임시휴무 안내문, 사진=SNS(NoContextKorea)

한국의 한 식당 장장이 베트남에 간 남편의 불륜이 의심스러워 현장을 잡고 돌아오겠다고 올린 휴무 안내문이 화제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가스 와 냉면을 파는 한 식당 출입문에 부착된 임시휴무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임시 휴무 기간과 휴무 이유가 적혀 있다.

가게 사장은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다가 딸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부득이하게 임시 휴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며 "일단 베트남에 가서 두 XX들을 아작내고 와서 장사하겠다"고 썼다. 이어 "집안일로 손님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2월 17일부터는 정상영업을 할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문이 실제 사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반응은 다양했다. 누리꾼들은 "후기 궁금해서 17일 돈가스 먹으러 가겠다", "17일 가게 미어터지겠다", "사장님 화이팅" 등의 반응과 "해외여행 가려고 사장님이 들려서 쓴 글 같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지가 배달앱에서 임시 휴무를 표시할 때 종종 보인다"며 "휴무 사연은 고객들에게 웃음을 주려는 사장이 임시 휴무를 재밌게 표현한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 특별 진료 •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